



민병숙

『차차감염』

『차차감염』

『차차감염』

·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민병숙(64세) 씨

- 지난 82년 8월 컨혈에서 우연히 자궁암 진단을 받았음.
- 특별한 게 어디까 아프다고 생 각이 안 됐었죠.
- 차차감염의 '정밀검사를 받 았고 싶어요.'
- '진앙이 어디에 들러 쓰였 어요?'
- '5차 감염은 조기 치료로서 90%의 생이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건강에 관해 있고 사는 일이 허다하며 설사 건강에 신경을 쓴다해도 그 건강을 유지해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 주어야지 병이 든 후 회복되는 건강은 처음에 가졌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또한, 설사 병에 걸렸다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병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며, 생명이 겪어야 하는 위기를 격감시켜 준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와의 같은 것이다. <편집자주>

월간지 “건강소식”을 우연히 읽어 보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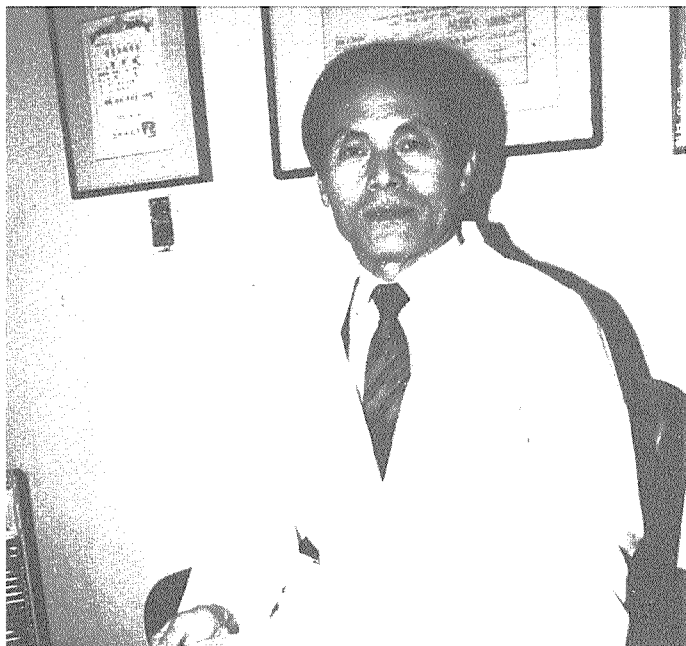
82년 8월쯤의 일이었다. 당시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었던 민병숙(64세)씨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기생충박멸 협회에서 발행한 월간지 건강소식을 읽어보게 되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40代 이후의 여성들에게 성인병, 특히 자궁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 자신의 건강에 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누구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검사해 보는 것이 좋다는 그 기사를 읽고는 제 건강도 재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냉이 많았으나 여성이면 누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건강소식의 기사를 읽고는 예방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검사해볼까 생각했었다고 당시의 생각을 민병숙씨는 얘기했다.

동네부인들과 함께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갔어요

『같은 동네에 마침 건협직원 한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건협에 가면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자궁암검사 등 여러가지 성인병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친절히 대답해 주더군요. 그분의 도움으로 동네 부인들과 함께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민병숙씨는 건협을 찾게된 당시가 지금은 오래전의 꿈만 같이 느껴진다고 부연했다.



민병숙씨처럼 우연
찮게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기회는
무척 드물지요.

최기선씨로부터 성인병에 관한 설명을 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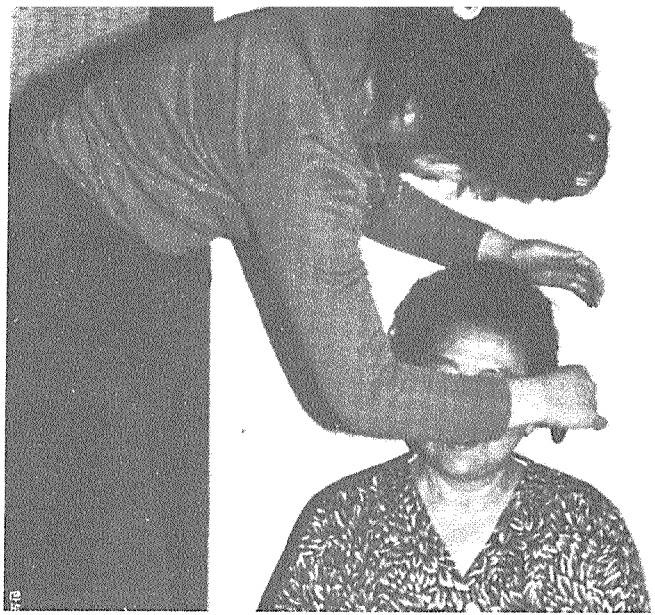
검사소에서 당시 그곳의 병리사였던 최기선씨로부터 여러가지 성인병에 관한 설명을 듣고 특히 자가채취기로 혼자 검사할 수 있다는 자궁암 검사(가또식자가 채취기)는 꼭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민병숙씨는,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검사기구를 집에 가지고 와서 검사소에서 배운대로 채취해서 보내놓고도, 한편으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예방삼아 하는 검사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태평이었던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민병숙씨는 조용히 웃었다.

『당시 꽤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검사를 받으셨죠. 누구나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예방삼아 자기 건강을 진단해 본다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했구요. 민병숙씨처럼 우연찮게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기회는 무척 드물지요.』 당시 담당 병리사였던 최기선씨의 얘기다.

평소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자궁암 유소견자라고...

『며칠 후 결과통보서를 받고는 정말 기가 막혔읍니다. 자궁암 유소견 Class 3라는 것이었읍니다. 자궁에 냉이 많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재검을

어머님의 상태가 좋지않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자궁내 어느 부위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보라는 것이었어요. 평소 건강엔 자신도 있었고 또 그당시 상식으로는 암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설사 치료한다고해도 제발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황진수 (26. 주부)씨는 당시의 느낌을 『정말 놀랐어요. 결혼한지 6개월쯤 되던 때였는데, 자궁암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주위에서 모두 걱정을 하니깐, 저도 덩달아 당황했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시어머니이신 민병숙씨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희 담당의사이신 이인성박사님을 찾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필요이상의 걱정보다, 확실히 알고 침착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라고 말하는 담당 병리사 최기선씨의 설명 속에는 내원자에 대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 지겠다는 확신이 들어 있었다. 『고민끝에 이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말씀이 암으로 의심되는 세포가 발견되었으니 우선 자궁을 깨끗이 치료한 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동네 산부인과에 가 검사통지서를 보이고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요. 그때의 걱정스럽고 암담했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당시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고 표정을 짓는 민병숙씨.

『그후 다시 건협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통지서를 받아들었을 땐 온 집안이 어둠에 둘러 싸였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좋지않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자궁내 어느 부위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건협에서 제일병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뻐합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인식

원 암진료센터를 소개해 주셨었습니다.』 며느리 황진수씨가 민병숙씨를 도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일병원 암치료센터의 이동희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결과통보서를 내보이니, 읽어보시고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검사를 해주더군요. 검사결과 암상피대암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뻐합니다.』하면서 민병숙씨는 마치 지금 그일을 겪기라도 하듯 밝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날로 입원해서 8월30일에 자궁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쪽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무서웠어요. 만일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을까를 생각하니, 지금도 아찔해요.』라고 침착하고 조용하게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했다.

『민병숙씨의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병이 다 그렇지만 자궁암은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것이 보통인데 병이 깊어지면 치료가 상당히 곤란해지지요. 민병숙씨는 다행히 초기에 검사를 받고 즉시 치료를 해서 완치된 경우입니다. 조기진단, 더 나가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입증시켜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당시 건협 담당의사이신 이인성박사의 말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 모두가 건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건협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벗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인간행복의 밑바탕은 역시 건강

『체계도 좋은 교훈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암은 말할 것도 없고, 병이라는 것 자체에 무관심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강진수씨는 그일을 계기로 느낀점이 있어 지금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협의 결과통보서가 어느 병원에서나 인정받고 있더군요. 그 통보서 덕분에 힘들고 복잡한 검사없이 꼭 필요한 검사만을 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었으니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이화고녀(現이화여고) 시절의 동창을 만나면 건협에서 건강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정확한 검사니까, 건강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1년에 한번정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지요.』라면서 민병숙씨는 경험을 통한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민병숙씨처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에 자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국민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인성 박사.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 모두가 건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건협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벗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난 날 한가족이 함께 겪었던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위 사람들의 건강관을 걱정해주는 민병숙씨와 며느리 황진수씨를 바라보면서 인간행복의 밑바탕은 역시 건강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은희 기자>